



4·9 총선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예비후보 집중탐구

차상구



포천 연천 낙후된 경제발전 비상구 찾아야 할 때

제네럴 일렉트릭(GE)의 LED(제 3세대 전기)산업 전초기지 포천연천지역으로 할터

약력 및 경력

- ▶성명 : 차상구(56세)
- ▶출생지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 ▶주요학력
 - 미국 시카고 루즈벨트대학교 회계학과 졸업(회계학 석사, 1980년)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1975년)
 - 경동고등학교 졸업(1971년)
 - 광신중학교 졸업(1968년)
 - 포천시 일동중학교 입학(1965년)
 - 포천시 일동초등학교 졸업(1965년)
- ▶주요경력
 -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본부 한민족 네트워크 위원회 부위원장(2007년)
 - 한나라당 제 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자문위원(2007년)
 - 한나라당 제 17대 대통령선거 서울선대위 정책특보(2007년)
 - 한나라당 제 17대 대통령선거 서울선대위 조직본부 부분부장(2007년)
 -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미 협력담당장(2007년)
 - 하인츠 워드(NFL, MVP) 복지재단 설립 준비 위원장(2006년)
 - 이명박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실 미주한인후원회장(2002년)
 -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통상 분과 위원
 - 신원 회계법인 국제부 고문
 - 美 연방 상원의원 덕 더빈 한인 후원회장
 - 성균관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취미 : 등산, 골프, 배드민턴
 - ▶가족관계 : 부인 안병선(52세) 씨, 사이에 1남 2녀
 - ▶평소 소신 :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성실 성의껏 최선을 다할 때 그 대가를 받는다.

과 둘째, 수도권 동북부에서 가장 많은 개발 가능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수도권 전체 5위),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성장 관리 권역에 속해있어 인구 집중 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연수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공업용지 조성사업, 택지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규모 혹은 총량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첫째, 포천 신도시 계획과 연계하여 제 2외곽순환도로를 하루 빨리 유치·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우건설과의 민자 사업을 통해 2023년 완공 예정인 국도 47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계획을 조속히 실현하여 BRT노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 동북부에서 가장 풍부한 4계절 인문·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포천시가 2004년 산자부로부터 지정받은 대전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조속히 실행하고, 경기비전 2020에 의해 계획된 첨단지식기반 연구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동북부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 및 종사자수를 보유한 포천시는 필요 이상의 모든 규제를 풀어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친 기업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분야별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1. 지역경제부문

연천, 포천지역에는 군부대가 경기도 전체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분포도가 높아 지역 경제발전에도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환경적요인, 교통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포천지역에 이미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인프라를 발전시켜 대규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 현재 추진 중인 항공산업단지, 예코시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외부 유동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발전은 물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시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 연천을 개성공단의 배후지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 남측에도 북측 공단규모의 공단 설치로 연천지역을 통일에 대비한 신공단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의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다. 글로벌 시티를 향한 포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막걸리나 갈비를 특화시킬 것이 아니라(물론 현재의 것을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 조성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연천지역에서의 방안으로는 백학산업단지 활성화, 통일 대비 신시가지 불투단지 확보, 청산공단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첨단산업 중심의 대규모 연구단지 조성을 통한 포천시의 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 근교 산업의 집약화를 위한 단지 조성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군내면·가산면 일원에 산재된 3천여 개의 공장들을 정비하고,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를 포천 신도시계획과 더불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자유치'(General Electric의 LED사업부 등)를 통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연천·포천은 50여 년 동안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왔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안보세를 신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2. 교육부문

현재 연·포천에는 제대로 된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 하나 없는 도시인이라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되고, 지역 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주 및 주요 직원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연·포천시내 거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공립고교를 특수목적고교로 전환, 발전시키는 방법이나 자립형 사립학교를 끌어들이 지역 내에서 고교과정까지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고교(예코시티·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연·포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게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또한 기업의 맞춤형 교육을 하는 맞춤형 중, 고 대학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전되는 지역 경제에 연·포천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다른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를 지역에서 다시 활용하는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업 때문에 이주했다가 학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다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교통부문

포천의 경우 서울, 잠남 등지로 연결하는 전철노선이 장기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7호선의 포천 연장(잠남-경기도 제2청사-포천)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민자 유치 도로 및 국가 BRT노선과 47번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계획 등을 앞당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천의 경우 현재 소요산까지 들어오는 전철을 연천까지 조기 연장, 이와 더불어 다차선화하여 물류투루도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두 시군에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로 관련 현안인 문산 LG필립스와 연결되는 도로를 연천을 경유하여 포천까지 관통하는 4차선 고속화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환경해권 시대와 서해안 시대에 미리 발맞추어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관광산업부문

한탄강, 산정호수, 백운계곡, 신북온천, 내촌 숲가마, 이동갈비촌, 베어스타운 골프·스키장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관광코스만 이용되어 있어 지역 재정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리조트를 유치하거나, 삼성 에버랜드 등과 연계한 테마형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통한 지역 관광자원의 거점을 구축하고, 라스 베가스식의 대규모 테마호텔들을 유치하여 국내 최대의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포천시 관광 자원벨트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일코스가 아닌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포천은 이미 수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지난 예코시티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도 있었지만 물론 실현되기까지 수많은 난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산재한 관광자원을 정비하고 포장하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단지 선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내·외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5. 농업부문

이미 많은 농경지가 휴농지가 되어 있다. 어차피 농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절대 농지를 해제하고 공업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조만간 통과될 FTA에 대비하여 보다 전문성을 띤 대규모 농가, 축산업의 육성을 위한 농민을 위해 한미 FTA 타격 시 약속했던 중앙정부의 지원을 원활히 받아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특화된 작물 재배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10배 이상 끌어 올리는 바이오 컬러 산업을 펼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6. 사회복지부문

연·포천시 전체 12,000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1회성 선심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단순노동 가능 장애인에 대한 국가 기관 우선 채용정책, 꾸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 생활 가능자로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분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 버스를 확대하고, 경기도 모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버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실버콜: 경기도 안양시에서 최초 시도-노인 전용 앰블런스(119와 같음))

또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지역 보건지소의 인력을 보강하고 더욱 다양한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낼 것이다.

7. 문화·예술부문

반월 아트홀같은 어디 내어 놓아도 빠지지 않을 훌륭한 공연장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중 계속 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통하여 포천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출신 예술인·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지역사회발전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연천지역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에 도입 문화예술촌 건립을 추진한다.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견해

올바르고 비전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야말로 그 지역사회 발전에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원로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망라한 정책자문회의 같은 포천시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초석의 역할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존중할 것이며 함께 하는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임.

유권자들에게 당부할 사항

지난해 12월 19일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경제회생을 기대하며 드디어 우파 보수를 택했다. 경제 대통령에 걸맞게 경제를 알고, 포천시를 어느 도시보다도 멋지게 발전시킬 수 있는 CEO형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그 동안 뒤쳐졌던 개발을 만회하면서 친 환경적인 주거지역조성을 통해 선진 명품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민주주의의 정수는 대다수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의한 지도자 선출에 있다. 선진 민주주의 시민답게 올해는 꼭 포천 발전에 적합한 인물을 국회의원, 시장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시대는 바야흐로 새로운 정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 온갖 비리와 철새 같은 정치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유권자들을 농락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한 과거의 파렴치한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이 비육한 우리 향토를 잘 가꾸어 우리 2세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한다. 시대는 경제회복을 원한다. 차상구는 몇 십 년을 기다렸으며, 또한 준비하였다. 자신 있게 경제 전문가라 자천한다.

“차상구가 있어 포천·연천이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이 든든합니다”



후원안내

-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법인과 단체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 후원회원이 아닌 분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하시는 분들께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을 드리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금주 김영철(후원회장) 농협 989-02-049403

무자녀 세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4월9일 총선, 포천·연천에 임후보할 차상구 예비후보의 후원회장 김영철입니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뤘던 2008년-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인 행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경제 회생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정부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경제강국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드림팀'이 있어야 합니다. 포천이 낳은 미시카고의 성공신화, 세계를 경험한 글로벌 경제전문가 차상구가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까닭입니다.

정권교체로 우리의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꺼내 주십시오. 차상구 예비후보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포천·연천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포천·연천예비후보 차상구 후원회장 김영철 올림

샤릿재 부페(이동갈비)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언제나 100%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아기 백일, 돌 행사
아버님 어머니 환갑, 칠순 행사
결혼식 피로연
각종 단체 모임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00-3번지
전화 : 031)536-9445 핸드폰 : 019-470-9445 팩스 : 031)536-7694